

漢字를 어떻게 섞어 쓸 것인가

이응백

서울대 명예교수·국어학

음성(音聲)언어에서 발음과 장단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기 쉬운 것과 같이, 문자(文字)언어인 글에서는 문면(文面)의 시각화(視覺化)가 읽기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통성명을 할 때, 또는 거리의 간판이나 도로 표지 등에 한자를 통하면 특징이나 뜻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길이 인상에 남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의 인쇄물이 한글만의 문면으로 찍혀 나오는 추세에 있다. 비교적 가볍게 읽어 지을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휘를 신중히 고르고 애써 문맥을 다듬는 공들인 글을 그토록 미로통 한글로만 적어냄으로써 읽는 이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의 경우, 무게가 실린 글일수록 그 중심 뼈대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은 2000여년 이전부터 한자에 의한 문자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뜻을 포괄 응축시켜 담아온 한자어를 단지 음으로만 적어 갈 때, 그 속에 담긴 묵직하고 깊은 뜻의 전달이 능률적이고도 분명하게 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1970년부터 정부에 의해 실시해온 한글전용 교육정책은 교육의 과정에서 한자어의 어소(語素)인 각 한자의 음과 훈을 통한 근본뜻은 도외시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뜻 내지 임시 의의(臨時意義)를 다루고 있으니, 철저한 한자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열릴 어휘 확장의 길이 막힘으로써 모든 것을 짐작으로 넘겨짚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이란 것은 글에 쓰인 단어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 재미도 있고 능률이 오르는 것인데, 오리무중에서 해매고 있으니 가탄(可歎)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한글세대를 겨냥한 한글전용 취향의 인쇄 출판물은 문면의 입체화를 문자의 질(質)에 의지하지 않고 편집 형식에서 기교를 부리고 있으니,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란 《논어》의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전문가는 쉽게 읽어버릴 수 있는 책은 안 읽어도 좋은 책이니, 지식이나 교양, 생활에 보탬이 되는 책은 애써 담은 뜻의 전달이 분명히 되도록 문면의 시각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 섞어야 할 것인가의 기준을 참고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 첫째,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말
안건(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국사
- 둘째,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사선(斜線·射線), 소수(小數·素數); 수학
광주(廣州·光州), 신사동(新沙洞·新寺洞); 지명
- 셋째, 중심 어구
중심 어구일 때 '학교·문자'(學校·文字) 등 쉬운 말이라도 한자로.
- 넷째, 고유명사, 전문용어
인명(李匡師), 지명(狼林山脈), 건물명(四虛亭), 건명(大典通編), 기타 학술어
- 여섯째, 글의 제목에서 중요한 한자어
- 일곱째, 문면의 2할이 넘지 않도록.
- 여덟째, 교육한자는 노출, 그 외의 한자는 괄호 원칙.
- 아홉째,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학습된 한자의 복습이나 확인 정착을 위해 대학신문이나 사보에 한자를 적절히 섞도록 배려할 것이다.

초대석	2	“고전의 正本작업이 30년 편집인생의 꿈” 출판의 원칙과 정통성 지킨 명편집자 정해림씨
저자 인터뷰	3	소설에 담은 큰스님들의 ‘큰 구도 궤적’ 《고승열전》 시리즈 10권 완간한 윤청광씨
출판 리뷰	4	책으로 살펴보는 학생운동의 역사
표지 인터뷰	5	《지리산의 꽃》의 사진작가 송기엽씨
화제의 출판	6	한국 독립운동의 해외현장 답사기 7 독립운동가의 삶을 통해 본 항전의 기록
출판 화제	8	세기말에 캐묻는 인류 문명의 근원 10 짧고 감동적인 편지로 엮는 ‘가족간의 사랑’ 11 미리보는 어린이 신간 기획
	12	새롭게 번져가는 출판사들의 ‘문화운동’ 각종 박물관·합창단 운영 학술강좌 등 다양
출판계 소식	13	제20회 월봉저작상에 김재근박사·외
현장 취재	14	여전히 암울한 출판유통의 현주소 할인율·거래방식 등 부조리한 현실
독서단상	15	홍세화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읽고—공지영
신간 읽기	1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고광직
책과 사상	17	에른스트 블로흐의 새로운 철학과 심리학—박설호
에세이	18	소설 나부랑이, 책 나부랑이—박완서 19 저 푸른 망아지 같은 시절의 책읽기—이가림
내가 읽은 원서	20	시간과 공간과 음악의 짜임새—서우석 클리프톤의 《청취로서의 음악》
작가가 읽은 명화	21	김윤식이 읽은 안건의 《몽유도원도》
서평	22	루벤 아벨 《인간은 만물의 척도인가》—진교훈 크리스텔러 《르네상스의 사상과 그 원천》—박우석 23 홍성호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하정일 24 이진순 《경제개혁론》—장상환 게이지 《중국과학의 사상적 풍토》—이문규 25 이호영 외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연구》—한상복 26 송성수 외 《과학이야기 주머니》—이은경 남진우 《신성한 숲》—박혜현
이 책 그 사람	28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펴낸 이동연씨 《몸》 펴낸 박석준씨 29 《삶보다 아름다운...》 펴낸 김혜정씨 《재미있는 중국의 이색풍속》 펴낸 강명상씨
세계의 출판	30	‘돼지’처럼 탐욕스런 美대학사회 풍자·외 32 신간 안내 / 42 청소년 도서 / 44 새로운 책

표지 사진/송기엽(지리산의 원추리·관련기사 5면)